

敬天·修道 意味 小考

尹起鳳*

目次

I. 序論	V. 道德規則上の 法則과 判斷으로서의 訓誨
II. 四綱領체계내에서의 敬天의 意味	VI. 修道의 合目的性
III. 四綱領체계내에서의 修道의 意味	VII. 結論
IV. 修道上에서의 心の 意味論	

I. 序論

기성 諸宗教에는 天과 수행체계에 대해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특히 동양사상에 있어서는 天과 人間の 관계가 지속적이고도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天과 人間の 문제가 고금을 통틀어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수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天의 관념중에서 특히 대별되는 主宰天과 理法天의 유교적 해석은 어떠한 첫인가를 개관하고, 아울러 대순사상 안에서의 敬天의 의미와 함께 修道의 실천적 의미체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敬天의 의미가 동양사상과 대순사상에서 어떻게 이해되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敬天을 통해 인간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敬天과 修道와의 연결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敬天과 修道를 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궁구해보고, 修道의 목적이 되는 道通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人間觀과 後天觀을 살펴보고자 한다.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이는 安心·安身된 상태에서 敬天에 나아가고 올바른 修道를 통하여 도래하게 되는 後天仙境의 제시를 통하여 修道人들의 修行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四綱領체계내에서의 敬天의 意味

동양사상에 있어서 天은 궁극자·절대자에 대한 관념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이해된다. 이러한 天관념은 다양성을 띄게 되는 데, 일반적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신령한 주재자로서의 하늘 즉,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인격적 主宰天과 우주적 원리로서의 하늘 즉, 철학적 이해의 대상이 되는 우주적 理法天으로 구분될 수 있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主宰天내에 理法天의 원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또한 理法天의 원리에 主宰天의 원리가 완전히 배제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만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강조되어지는 관점에 의해서 분류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主宰天과 理法天의 양개념을 근거에 두고서 天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인격적 主宰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골문에 의하면 天의 개념은 보이지 않으며, 대신 帝의 개념이 등장한다. 帝는 殷의 守護神이었으며, 절대신·최고신으로서 인간만사는 물론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관장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곧 당시의 생활전반을 주재하는 王의 위격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夏殷周의 왕조교체에 있어서 당시의 주재천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의 고대인들은 殷에 대한 周의 승리를 殷族의 帝에 대한 周族의 帝의 승리로 이해했으며, 이는 곧 天이 부족을 보호하는 성격의 至高神의인 관념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격신으로서의 天의 특징은 有德者를 보우하고 行惡者를 징계하며 공평무사하여 어떤 특정개인이

1) 金能根, 「儒敎의 天思想」,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8, pp.113-116

나 왕조를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사회적 부조리나 개인의 고민을 토로할 때는 언제나 天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을 보아 그들의 마음속에 경천사상이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

이러한 인격적 주재천의 관념은 춘추시대에 이르러 확대해석 되어지는 과정안에서 天의 인격성이 점차 우주론적인 질서의 개념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종교적인 의미의 天觀에서 철학적 의미로의 天觀이 부각되어졌다.

天觀의 이러한 발전은 이 시대에 보이는 합리주의와 더불어 天의 기본성격을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종교적 天과 天道·天命의 주체로서 원리적 개념의 天으로 나누어진다.³⁾

孔子·孟子 등 선진유학에 있어서 天은 내재적 질서나 법칙으로 이해되었으며, 周濂溪, 張橫渠, 程明道·程伊川의 학설을 집대성한 朱子대에 이르러서 궁극적 절대 개념으로서의 理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⁴⁾

한편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天관념은 '하늘'관념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는 한민족의 민족적 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한민족이 지니는 종교적 심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격적 主宰天으로서의 天관념은 성리학의 유입과정안에서 이론의 심화를 통해 인격적 主宰天으로서의 의미보다는 理法天으로서의 의미로 이해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민중의 투쟁과 외세의 외압속에서 민중의 종교적 심성을 토대로 理法天보다는 主宰天 즉, 天의 人格性에 중점을 둔 사상들이 등장하게 된다.⁵⁾

이러한 사상적 측면들은 경천과 관련하여 하늘은 인간존재의 원천으로서 천명과 성이 부여되었고 아울러 인간이 하늘과 그 본성에서 통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理法天으로서의 개념보다는 인격적 主宰天으로서의 개념에 더 근접

2) 金能根, 「儒敎의 天思想」, 서울:송실대학교 출판부, 1988, p.113

3) 李文周, 「중국고대의 천관에 대한 연구」, 동양철학연구회(第10輯), 1990, pp.28-29

4) 勞思光 著/鄭仁在 譯, 「中國哲學史(宋明篇)」, 서울:探求堂, 1997, pp.377-379

5) cf)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경세원, 1996, pp.79-81

한 사상이라 할 것이다.

敬天의 인식방법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연에 대해 인간 자신의 왜소함을 자각하고, 외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와 敬天을 통해서 본래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회복하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격적 主宰天으로서의 천의 위격과 권능을 경전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天의 位格은 唯一無二한 至高의 存在로서 全知全能하고 無私至公하며 의로움을 주관하는 絕對者로서 그 位格을 가지며, 그 권능은 우주의 자연현상을 관장하는 조화주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행위의 전반에 걸쳐 그 길흉화복과 생사를 주재하는 궁극적 절대자로서의 권능을 가진다.⁶⁾

한국에서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종교에 있어서 대다수가 인격적 主宰天으로서의 천관념을 지니게 된다. 특히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天관념은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강세하셨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天人合一을 전제로 한 본체론적 인식

6) ▶ 자연을 주재하는 조화주로서의 의미

「상제께서 삼계의 대권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 비를 견히게 하시려면 종도들에게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상설·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 (공사1-4)

▶ 길흉화복을 주관

「금구수류면 평목점(金溝水流面坪木店)에서 정 괴산(丁槐山)이라는 자가 집안이 가난하여 주막의 술장사로 겨우 호구하면서 매양 상제를 지성껏 공양하였더니 상제께서 어느날 우연히 주막에 들렀을 때 괴산이 상제께 올리려고 개장국을 질 술에 끓이다가 질술이 깨어지므로 그의 아내가 낙담하여 울고 섰거늘 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쇠술 하나를 갖다 주었더니 이로부터 그의 가세가 날로 늘어났도다. 그 후에 그가 태인 방교(泰仁方橋)에로 이사하게 되자 그 쇠술을 수류면 환평리(環坪里) 정 동조(鄭東朝)에게 팔았더니 이로부터 괴산은 다시 가난하게 되고 정 동조는 도리어 살림이 일어나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 술을 복술이라 불렀도다.」 (행록3-19)

▶ 生命을 주관

그후 어느날 금곡이 상제를 정중하게 시좌하더니 상제께 저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대는 전생이 월광대사(月光大師)인바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리니 九十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 하시니라. (행록2-13)

이 있으며, 하늘과의 일치를 추구하고 본성을 실현하는 修養論的 방법이 제기된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하늘의 본성을 회복·보존하고 배양하는 存心養性의 방법을 통해 부여받은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있다.

修養論에서 가장 강조되는 태도는 공경(敬)의 실천이다. 敬은 궁극적 존재자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반면, 인간은 불완전한 미완의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자각하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인간은 삶의 이상으로서 天-上帝와의 일치를 추구한다. 여기서 공경의 목표로서의 天-상제와의 일치가 실현된 이상적 상태는 誠, 곧 진실로서 제시된다. 誠의 일반적 정의로서 '진실하여 거짓됨이 없는 것'이라 한 것도 궁극 존재와의 일치 상태에서 인간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있다. 「中庸」에서는 '진실은 하늘의 道이며, 진실하는 것은 사람의 道이다.(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라고 하고 있다.⁷⁾

이러한 측면에서 구천상제⁸⁾의 인격적 主宰天으로서의 天觀에 있어서의 초점은 인간존재에 맞추어져 있다. 상제의 言說에 나타난 '人尊'은 곧 신격화된 인간을 말하며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극도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상적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상제의 사상에서 표명된 '人尊'의 의미는 天尊·地尊과도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존중의 정신을 극대화한 표현이다. 이에 증산이 강조한 '人尊時代'란 인간에 내재된 神性を 강조하고 이 세계를 신격화된 인간이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로서 현실적 존재의 인간이 이상적 인간으로서 거듭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⁹⁾ 결국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敬天의 의미는 수도인들이 상제님의 대순진리의 奉教信仰에 邪慮없는 敬虔一念의 마음을 다하여 人尊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7) 금장태, 「유교의 천(天)·상제관(上帝觀)」, 제17회 토착화연구발표회·신관의 토착화, pp.91-94

8) 이하 「상제」라 칭함.

9) 이경원, 「韓國 近代 天思想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p.159

Ⅲ. 四綱領체계내에서의 修道의 意味

수도라 함은 종교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心·身의 內·外形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넓은 뜻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내적 자아의 향상을 가능케 하는 제반체계를 일컫기도 한다.

수도는 종교 의례중의 하나로서 신앙의 대상을 향하여 행하는 의례와는 달리 자기자신을 향하여 행해지는 의례이다.

이러한 수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수도는 수도자가 일정한 환경조건 속에서 선현자의 가르침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의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행해진다.

수도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할 요소가 있다. 첫째는 수도의 목적을 담은 종교사상의 제시이다. 둘째는 수도의 장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속의 장소를 떠난 곳이다. 셋째로 지도자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수도를 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첫째 불면, 금식, 단식, 금욕, 침묵 등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일을 금하는 고행주의적 전통안에서 호흡의 조절, 좌선, 순례 등 일상의 동작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경우 그리고 주문, 기도, 봉송, 경전 낭송 등 수도를 위해 특별히 제시된 것을 행하는 의례적 전통 등의 방법이 있다.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수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도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단전(丹田)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한다.」¹⁰⁾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는 상제님의 말씀에 나의 심신을 적중토록 일심으로 행하는 데 있다. 선천의 무도한 현실을 바로 세워 새로운 도덕과 윤리를 세우는 역사적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수도는 바로 이같은 사명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제님께서서는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皆病(행록5-38)이라 하시

10) 「대순진리회 요람」, 서울:대순진리회 교무부, pp.17-18

어 천하가 병들어 있음을 말씀하셨다. 따라서 충·효·열의 올바른 실천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소양이며, 인간을 병들지 않게 하는 처방전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선천의 현실은 이러한 충효열이 없음으로 해서 무도의 세상이 되었으며, 천하 대·소병의 원인이 모두 無道에서 출함을 상제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¹¹⁾ 그러면 무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행록5-38)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父君師에 대한 忠孝烈의 도리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닦아가는 忠孝烈의 윤리는 안심안신을 이루고 無自欺를 바탕으로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유일의 수도의 요법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도인들은 이 無道の 세상을 有道の 세상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수도에 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여러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도인으로서 역경을 극복,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뜻한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수도인들은 일심으로 도를 닦아 운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운수를 받기 위해 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수도인들이 수도에 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혀 놓고 있다.

상제께서는 다가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운수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¹²⁾

현재의 수도인들은 미완(未完)의 부족한 존재로서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공덕을 통해 운수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 과정속에서 자연계에 흑독한 바람이 불어 재난과 재해를 가져오듯 많은 역경을 겪을 수 있다. 바람이 부는 것이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필요한 현상처럼 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과거 자신의 마감을 없애 복을 주기

11) 「 ---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 」(행록5-38)

12) 「나는 해마를 위주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리니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해원하리라고 타이르셨도다.」(교법2-15)

「--- 내마음을 스스로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교법3-12)

위한 신명의 채찍질인 것이다.¹³⁾

「바람이 불었다가도 그치느니라(風亦吹而息)」(교법2-48). 모든 일은 그 당함에 있어서 계속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경과하면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일에 뜻을 둔 자는 넘어오는 간뇌를 잘 삭혀 넘겨야 하느니라」(교법1-3)하셨다. 따라서 수도인들은 이를 명심하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껌에 있어서 성지우성해야 하는 것이다.

대순지침에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대순지침, p.37)이므로 「상제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르니라」(대순지침, p.39)고 하고 있으며,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대순지침, p.39)를 통하여 어디서나 暗室欺心 하는 마음 없이 수도에 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의 제 규정을 엄수하지 못하고 샅된 방법으로 수도를 행하게 되면 정기(正氣)는 물러가고 사기(邪氣)가 선동하여 허령(虛靈)이 되는 것이다.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대순지침, p.53)¹⁴⁾고 하였다.

올바른 수도자세는 훈회와 수칙을 마음에 새기고 준수하는 것이다.

「좋은 꽃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吉化開吉實)」(행록5-38)는 상제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맑고 투명하게 닦아 유리알처럼 만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포덕사업을 창성시켜 많은 상제님의 일꾼들을 만들어 놓았느냐에 따라 좋은 열매(吉實), 즉 큰 운수가 열리는 것이다.

수도는 논리가 아니라 정성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수도는 정성된

13)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勞其心志 苦其筋骨 餓其體膚 窮乏其行 拂亂其所爲 是故 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행록3-50)

14)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업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예시30절)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예시17)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수도인들은 여합부절인 상제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心修奉行 해야 하는 것이다.¹⁵⁾

상제께서는 천하를 구원하여 도화낙원(桃花樂園)을 이루기 위해 천지공사를 9년간 역사하셨다. 상제께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문의 송독과 행위법을 주시고 실천하도록 하셨다. 또 도주님께서는 50년 동안의 공부(工夫)를 통해 도인들의 수도공부의 법방(法方)을 제시해주셨다.(교운2-62)

주문을 통해서 수도인들은 경건하게 되고 근신하게 된다. 그 경건과 근신은 결국 수도인의 내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는 상제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1-5)고 하신 말씀과 같이 믿고 실천하는 수도자의 자세가 요구되는 차원의 수행이다.

이와 같은 수도는 그 구분에 있어 공부와 수련과 평일기도와 주일기도로 대별된다.¹⁶⁾

공부는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주문을 송독한다.

수련은 자신의 탁한 현재 심성과 기질을 닦아서 본시 본원의 맑고 깨끗한 심성과 기질로 환원시키는 단련이다. 이것을 수심연성 세기연질이라 한다, 수련에 있어 전제되는 신앙은 사람이 심성과 기질을 본바탕으로 하여 몸이 있다는 종교적 인간관이다. 수련을 통해서 본시본원에 환원된 심성과 기질은 성스러운 것이며, 환원된 내면적인 자아는 그 성스러움에 동화한 존재이다. 이 본래적 자아가 바로 전경 구절에 보이는 진인(真人)이고 一心을 가진 자이다. 수련 장소는 속의 공간안에서도 정화(淨化)된 성스러운 공간이다. 그 마련된 성스러운 공간이 도장, 회관, 포덕소에 있는 수련실이고 가정에 있어서 수련할 때의 법좌한 자리이다

기도는 수련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나, 기도는 수도의 한 종류이다, 이것

15) 「誠·敬·信 三法言으로 修道의 要諦로 삼고 安心·安身 二律令으로 修行의 訓典을 삼아 人間 本來의 淸淨한 本質로 還元토록 修心軟性하고 洗氣軟質하여 大巡眞理를 勉而修之 誠之又誠하여 道卽我 我卽道の 境地를 正覺하고 일단 豁然 貫通하면 三界를 透明하고 森羅萬象의 曲盡理解에 無所不能하나니 이것이 靈通이고 道通인 것이다」 大巡眞理會 趣旨文中

16) 「대순진리회 요람」, p.18

은 상제를 대월하고 영시하는 신앙 태도이다.

일반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다르며 절차는 법수봉전, 분향, 배례(좌배), 주문봉송, 좌배, 심고, 예필로 되어 있다. 도장, 회관, 포덕소, 자택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기도 의식이 거행되는데 평일기도와 주일기도로 구분된다. 그리고 의식의 거행 시간은 기도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다.

IV. 修道上에서의 心の意味論

인간에게 있어서 그 근원처가 되는 것은 마음이다.

인간의 모든 사고와 언어행동의 근원은 마음에서 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서는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교법 1-11)라고 하시어 인간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유래됨을 말씀하셨던 것이며 도주께서도 포유문(布喻文)에 「나의 구하는 것은 무량하고 지극한 보배에 있으니 지극한 보배라는 것은 곧 나의 심령(心靈)이다」¹⁷⁾라 하시어 인간이 찾아야 될 진정한 보배란 금은과 같은 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깊은 영혼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다.

이는 곧 광구천하, 포덕천하의 개혁시대를 맞아 실천을 통한 덕화의 선양과 그 실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투명한 거울과 같이 닦아 청정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수도가 수도인 각자에게 함께 있어야 됨을 보여 주신 것이다.

상제님께서서는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행록3-44) 라고 말씀하셨다. 즉 마음은 신이 용사하는 중추기관이며 또한 마음은 천지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마음의 바탕은 성·경·신의 기초가 되고 거기에서 복록과 수명이 비롯된다고 하겠다. 그것을 대순지침에서는 「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대순지침 p.76)이라 표현하고 있다.

대순지침에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이용한다」

17) 「---吾之所求有無量至寶至寶卽吾之心靈也---」 (교운2-41)

「마음이 몸의 주(主)로 제병제악(諸病諸惡)을 낚아 들이는 것이다」(대순지침, p.48)라고 하여 인간의 근본처가 「마음이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도인으로서 근본인 마음에 대해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며, 도리어 자기마음을 밝게 밝혀서 하늘로부터 누구나 부여받고 태어난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의 회복을 이룩해 수행의 실천적 원동력으로 삼는 각고의 자기성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간 본래의 청정한 품성을 찾아 근본인 마음을 닦는 것이 중요함을 말했다.¹⁸⁾

그럼으로써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부단한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인 마음에 자극을 받아 자신의 심성(心性)을 닦아 연성시키고 기질(氣質)을 정밀하게 단련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¹⁹⁾

마음이란 것도 경위(經緯)에 따른 바른 수도생활 속에서 닦여져 빛을 발하는 것²⁰⁾이며 대순진리 안에서 마음을 닦지 못한 사람이 신도(神道)의 질서 속에서 포덕 사업을 펼쳐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도의 실천적 사업」 결과는 인간의 근본인 마음 그리고 공덕을 모두 다 보여주는 총체적인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여하히 실천하는가의 과정 안에서 전제되는 것은 믿는 마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특히 대순사상의 체계내에서는 이 믿음의 토양위에 정성이 덧붙여져 성지우성(誠之又誠)해 나가는 일심의 노력이 기울여질 때 대운대통(大運大通)의 기운이 모여져 도에서 자신의 공든탑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제님에 대한 믿음(信)이 중요함을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 지니라」라는 구절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상제님을 곁에서 따랐던 종도들 일지라도 믿음을 저버리면 죽을지니라 하신 말씀을 숙고해 볼 때 다시 한번 믿

18)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하고 깨우쳐 주셨도다. (교법1-21)

19)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샧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교법3-4)

20) 「내가 너를 데리고 다는 것은 네 배 속에 경우가 많은 연고니라. 여자도 경우가 많아야 아이를 많이 낳으리라」 고 공우(公友)에게 말씀하셨도다. (교법1-45)

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수도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修心鍊性·洗氣煉質이 강조된다. 상제님께서도 「진실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교법2-6)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수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또한 無自欺의 근본이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는 수도인 각자가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출발점이 된다고 하겠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대순지침 p.38)고 하심은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대순지침 p.37)이라는 실천성과 함께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는 행동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 주리라.」 21)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은 품지말라」 22)

우리가 道를 닦아 나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要求되는 것이 일심이다.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권지1-19) 하셨다. 일심이란 말의 뜻은, 한 마음, 통일된 마음,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 본연의 청정한 마음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수도를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천지의 완성에 맞추어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 자아완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며,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교운1-66, 현무경 21면)이라는 의미를 새겨 천지가 성경신으로 이루어지듯 인간도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어라」 23)

21) 「典經」, 教法2장4절

22) 「典經」, 教法2장5절

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상제님께서 법으로써 나타내신 교훈과 교훈의 결과가 두 개의 나누어진 부절(符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듯 실현되어지는 진리임을 믿고 수도인으로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대순지침에 道는 영원한 진리이므로 도에서의 시한부를 운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천지개벽의 때는 하늘이 정해 놓았다. 수도인들은 수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神)의 위엄을 떨쳐 불의(不義)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仁愛)를 베풀어 외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30)

이제 개벽시대를 맞아 일심으로 참된 자가 되는 수도를 우리 모두 견지해야 할 것이다.

V. 道德規則上的 法則과 判斷으로서의 訓誨

종교 단체는 그 종교가 뜻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율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 계율은 '교단 당국이 설정한 규칙과 처벌 조항'이라고 하였고, 윤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 곧 인륜 도덕의 원리'라고 하였다.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용어적인 해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계율은 어떤 종교가 반드시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 영역의 종교규범을 뜻하고, 윤리는 특정한 영역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단체 및 사회의 광의적 규범을 뜻한다.

23) 「典經」, 教法2장2절

하나의 종교에서 계율과 윤리는 종교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즉 신앙의 대상이 정(定)한 종교적인 법률이다. 그러므로 계율과 윤리 조목들은 모두가 신앙의 대상이 정한 뜻이며 꼭 지켜야 하는 신법(神法)이 되는 것으로 그런 만큼 계율은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러므로 행위를 규범하게 된다.²⁴⁾

해원시대에 필요한 생활자세는 남을 잘 되게 하는 생활자세이다. 이것은 남을 잘되게 해주려는 생활을 통해 원을 짓지 않으며 신분적, 사회적으로는 모든 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원을 없애 나가기 위해 서이다. 상제님께서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 양반이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1-9)라고 하시어 신분적인 면을 탈피해 인간적 인격적으로 모든 이를 평등하게 대접할 것과 해원시대를 맞아 천인들이 받았던 원을 풀어 주어야 함을 말씀하셨다. 이와 함께 우리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전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음으로 조선명부가 되었느니라(교법1-2) 이것은 전명숙이 천인을 귀하게 해주려 한 일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해원시대를 맞아 천인을 우대하라는 뜻을 몸소 실천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남을 잘 되게 해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남을 잘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생활해나가는 것은 원을 풀어 나가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로 덕을 닦고 사람을 경위(經緯)에 맞게 올바르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제님께서 해원시대를 맞아 밝히신 아래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吉星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때는 해원시대 이므로 덕을 닦고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라」(교법2-20) 그러면 여기에서 덕을 닦는 일과 사람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덕을 닦는 일’의 중요성은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듯 나에게 친숙하게 추종하나 후일에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리라. 마음을 바로하고 덕 닦기를 힘쓰라. 동학가사에 많고 많은 저 사람에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그러한가 와 같이 탄식줄이 저절로 나오리라」(교법2-9)라고 하시어 상제

24)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대진대학교 출판부, p.226

께서 출세하실 때 덕에 따라 복을 내려주심을 말씀하신 곳에 보이며 또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앉히리라.」 (교법1-29)

즉 자신이 덕을 닦는 일은 외부적으로 남에게 바른 처사를 하게 됨으로써 원을 짓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스스로도 원을 지은 사람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다음은 '타인을 올바르게 대우하는 일'은 경위에 맞추어 인격적으로 바른 처사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가문, 재산, 학식 그리고 외모에 따라 차별하여 불평등하게 대접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경위에 맞는 처사를 함으로써 법리가 바로 서고 상대방은 억울함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사람을 쓸 때에 남녀노약을 구별하지 않느니라」 (교법2-40)하셨다.

우주의 모든 일에는 시작되는 근원지가 있고 출발점이 있다. 시작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人間)이라는 하나의 존재에도 중심이 되는 근원처가 있어 그곳에서의 작용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 행동을 하게 됨은 똑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아 모든 일에 깨달음을 열어 간다면 근본에 잘 대처할 수 있어²⁵⁾ 수도의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도덕규칙상의 법칙과 판단으로서의 훈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을 속이지 말라.

마음은 일신의 주인인 사람의 모든 언어·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그 마음에는 양심과 사심의 두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됨이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하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라.²⁶⁾

25) 물유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후면 즉근도의(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라 하였고 또 「기 소후자에 박이오 기 소박자에 후하리 미지유야(其所厚者薄 其所薄者厚 未之有也)」라 하였으니 이것을 거울로 삼고 일하라. (전경, 교법2장51절)

26) 「대순진리회 요람」, 서울:대순진리회 교무부, p.19

대순지침에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이용한다. 「마음은 몸의 제병제악(諸病諸惡)을 낚아 들이는 것이다」²⁷⁾라고 하여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²⁸⁾

모든 인간의 근본이 되는 근원처가 ‘마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도인으로서 근본인 마음에 대해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자기의 마음을 밝혀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본래의 청정한 본질의 회복을 이룩해 수행의 실천적 원동력으로 삼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 되며, 양심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 된다. 천리(天理)는 순환하는 것이므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 곧 남을 속이는 것이 되고, 남을 속이는 것이 곧 자기를 속이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즉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까닭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집착과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직과 진실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며 살피서 물욕에 가리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탐욕과 어리석음과 어두움과 더 나아가서 방종과 편벽됨과 사치로 흐르게 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든 죄악과 잘못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둘째, 언덕을 잘 가지라.

말은 마음의 소리요 덕은 도심의 자취라. 나의 선악은 말에 의하여 남에게 표현되는 것이니,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남 잘 되는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악하게 하면 남 해치는 여음이 밀려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 화와 복은 언제나 언덕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니 언덕을 특별히 삼가하라.²⁹⁾

대순지침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니 되 생각하고 말하라」³⁰⁾라는 글을 통해서 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짐작할 수 있다.³¹⁾

27) 「대순지침」 p.48

28) 양심과 사심의 양단면을 보여주는 전경구절로서 다음의 예가 있다.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 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행록 3-44)

29) 「대순진리회 요람」, 서울:대순진리회 교무부, p.18

30) 「대순지침」, p.78

셋째, 척을 짓지 말라.

척은 나에게 대한 남의 원한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호의를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행위인즉, 항상 남을 사랑하고 어진 마음을 가져 온공양순 겸손 사양의 덕으로써 남을 대할 때에 척을 짓지 않도록 하라.³²⁾ 여기서 척이 갖는 性情은 怨恨과 동일시 할 수 있지만, 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다르다. 즉 내(我)가 남(他)을 미워하는 마음이 원한으로 표현되어진다면, 남(他)이 나(我)를 미워하는 마음은 척으로 표현된다.³³⁾ 결론적으로 척과 원의 작용방향은 반대이고 성정은 같다. 따라서 척의 성정만 고려되어진다면 慳은 복수형적인 원한이며 부정적 측면의 원으로 해석되어진다.³⁴⁾ 이러한 척을 푸는 방법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³⁵⁾

넷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은혜라 함은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혜택이요, 저버림이라 함은 잊고 배

31) 「... 악장제거 무비초 호취간래 총시화라.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은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하셨도다. (교법1-11)

「한고조는 소하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나니 너희들은 아무 것도 베풀 것이 없는지라. 다만 언덕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가 할지니라」 (교법2-50)

32) 「대순진리회 요람」, 서울:대순진리회 교무부, p.19.

cf) 상제께서 기유년에 들어서 매화(埋火)공사를 행하고 사십 구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이므로 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 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다. (공사3-29)

33)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은 무시하는데서 반발을 일으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 (「대순지침」, p27)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갇나니라」 (전경, 교법2장44절)

34) 박용철, 「전경에 나타난 원의 본질과 구조」, 「대순사상논총」 제1집, 포천:대진대학교 출판부, 1997, pp.406-407.

35) 「천지 종용지사(天地從容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고 천지 분란지사(天地紛亂之事)도 자아유지(自我由之)하나니---」 (전경, 교법3장29절)

반함이니 은혜를 받거든 반드시 갚아야 한다. 생과 수명과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니 성·경·신으로써 천지 보은의 대의를 세워 인도를 다하고, 보명(保命)과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 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며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출생과 양육은 부모의 은혜이니 숭선(崇善) 보본(報本)의 대의로 효도를 다하고, 교도 육성은 스승의 은혜이니 봉교(奉教) 포덕(布德)으로써 제도를 다하고, 생활과 녹작(祿爵)은 직업의 은혜이니 충실과 근면으로써 직분을 다하라.³⁶⁾

상제께서는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 天下皆病 이라 하여 은혜를 저버린 무도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은의 윤리를 강조한 것으로 다음의 구절이 있다.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만 아무 거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³⁷⁾

다섯째, 남을 잘 되게 하라.

남을 잘 되게 함은 相生大道의 기본원리요 救濟蒼生의 근본이념이라. 남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성사에는 타인과의 힘을 합하여야 된다는 정신을 가져 협동생활에 일치 협력이 되게하라.³⁸⁾ 이와 같은 실례를 상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³⁹⁾

진정으로 복을 구하는 자는 「남을 잘 되게 하라」는 윤리를 실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말과 행동가짐을 상생의 진리로 바꾸어 수행해 나가는 것이 평등과 화합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는 다음의 대순진리회의 훈회를 통

36) 대순진리회 요람, 서울:대순진리회 교무부, p.20.

37) 典經, 教法3장22절

38) 위의 책, pp.20-21.

39) 典經, 教法1장2절

해서 그 본질적인 수행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써 일체의 죄악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언덕을 잘 가진다는 것은 나의 말로 인하여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니 그 잘된 여음이 나에게 밀려 점점 큰 복이 됨을 이르고 셋째, 남에게 원한을 맺게 하는 일이 없이 척을 짓지 않음으로써 천지의 기운이 막히지 않고 원만한 생활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넷째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는 물 한 그릇이라도 남의 은혜를 입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갚아야 함을 말하며, 이것이 기본이 되어 천지의 은혜에도 인간이 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후천선경이 건설되어 지는 것이다. 다섯째로 남을 잘되게 함은 상생대도의 기본원리라 생각되는 것인데 여기서 매사에 타인과의 힘을 합하는 정신을 갖게 되고 협동·화합의 정신이 비로소 싹틀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완전한 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혁신이 요구된다. 즉, 훈회와 수칙을 언행으로 실천하며 신조인 사강령(四綱領)과 삼요체(三要諦)의 의미를 자각하고 또한 무도한 세상을 世有忠 世有孝 世有烈로 전환시키기 위해 인륜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 정신개벽(精神開闢)을 근본으로 하여 참된 도인이 되는데 있는 것이다.

VI. 修道의 合目的性

대순사상에서의 인간관은 후천의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존사상으로 집약된다.

대순사상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는 선령신(先靈神)들이 육십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공을 쌓아서 태어난 존재가 된다.(교법2-36) 따라서 인간은 신명계와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체(關係體)이며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는 아닌 것이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⁴⁰⁾

선천에는 모사재인하고 성사재천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재천하고 성사재인이니라.⁴¹⁾

에서 인간은 전체 구조 속에서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존재가 곧 인간존재와 직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표상(表象)일 수 있는 것이며, 인간의 심령(心靈)은神明(神明)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이고 길이며 인간존재의 중추가 된다.⁴²⁾

대순사상에서는 세속적 지식과 재리에만 어두워지는 인간에서 탈피하여 천지인 삼계의 이법에 따라서 생을 영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인간상이 곧 도덕군자(道德君子)라고 일컫는 인간상이니 이것이 人尊의 인간관념인 것이다. 이러한 인존관은 내재적 본래 심성을 회복하는 인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이념이 「상생(相生)의 시대, 후천선경(後天仙境)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한다면 천지인 삼계의 유기적 통찰에 의한 인존의 시각은 「이상세계(理想世界)의 건설」이라는 지향점과 그 실현의 궤로서의 가능성이 무한적적하다고 하는 인간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족 종교 사상의 큰 줄기를 잡고 있는 하나의 흐름은 인간 존엄성의 기본 사상에 바탕한 새로운 인간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인간 이해에 대한 파격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느끼고 있는 기층 민중들에게는 자존의 질서를 재정립케 하고 삶의 현장에서의 무기력을 극복하여 종교적 이상세계 구현에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대순사상에 있어서는 인존의 인간관념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존은 기존의 인간형성이론의 해석방법 안에서만 국한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 본질의 존재론적 가성을 전제로 하여야 그 이해가 가능하다. 심학(心學)에 기초한 심즉신(心卽神)의 관계에서 “心也者 ---- 大於天地”(행록 3-44), “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교운1-66)의 인본적 세계관을

40) 典經, 教法2장56절

41) 典經, 教法3장35절

42)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행록 3-44)

남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인존은 심(心)·신(神)·신(身)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가 이루어진 존재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존 개념의 형성에 있어 마음의 문제는 인존 사상을 구명해 내는 기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존의 형성과정에 있어 마음의 문제는 본질적 측면에서 그것의 역할을 통하여 인간의 심성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인간은 천존(天尊)·지존(地尊)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존(人尊)이 되는 것이며, 우주심이 투영된 소우주(小宇宙)라고 할 것이다.

천지의 모든 일이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우주로서의 인간이 없으면 천지도 또한 없는 것이며 그래서 천지는 인간을 화생(化生)케 한 것이다. 또한 소우주로서의 인간은 우주심을 반영한 마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육체는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인의 모든 운행이 마음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마음은 신(神)이 통하여 드나들 수 있는 중요한 중추기관이자 통로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 심(心)·신(神)·신(身)의 구조적 인간은 그것들의 통일체로서 모두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통일체의 창조적 표현을 연마함으로써 그 자신은 교육적 전인(全人)이 되는 (J.M.Rich. 김정환 역, 1985: 71-73) 인존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증산에 있어 인존의 형성 이론은 천심즉인심, 인내천, 사인여천 등에서 보이는 인간지상주의적 관점(이원호, 1986: 286-288)에서 더욱 발전하여 심·신의 균형, 신·인의 조화를 견지하여 인간과 외계사물의 동체주의적 내용을 구명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마음은 천지보다도 크다'고 하는 창조적 자기표현은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게 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주체적 자발성과 사상·사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사고에서 올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인격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心)·신(身)·신(神)의 균형있는 육성이라는 통합적 교육관을 전제하고 있다.⁴³⁾

상제께서 밝히신 지상선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인존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43)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pp.116-118.

인존을 위해서는 우선 신명이 인간을 받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간이 인간을 서로 존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질 또는 가리워져서 나타나지 않던 청정무구한 양심을 회복하며 누구나 마음의 닦은 바에 따라 천지간에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후천의 새로운 인간상인 인존의 모습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인존시대를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닦고 지성을 다해 수련을 함으로써 인존시대의 주역인 주체적 인간이 됨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인존시대를 누릴 수 있는 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시대의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 되는 심신의 수련과 끊임없는 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다.

「후천에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게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4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천에 계급이 존재하더라도 선천에서처럼 억압속의 존재가 아니라 조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로서 정치적 이상이 실현⁴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후천의 모습은 도덕이 주(主)가 되어 모든 일을 법리에 맞게 다스리고 제도하는 인류의 이상시대⁴⁶⁾ 상황을 제시하

44) 典經, 豫示81절

45)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相生)의 도로써 화 민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 (교운1-16)

cf)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 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 (교법3-26)

46)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사회로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들 수 있다. 대동사회는 유교의 이상사회로서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사회이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고 있다.

『주역』繫辭전에 따르면 요·순은 황제와 같이 의관을 움직이지 않고 드리운 채 앉아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고 하며 그것은 대개 건곤패에서 그 법칙을 본받은 것이다. 하늘이나 땅은 자연스럽고 순탄하여서 작위하는 일도 없고 요란한 일도 없지만 천지만물을 크게 생성화육시키는 것과 같이 요순도 하늘과 땅의 법칙을 순승하여 천하를 다스리고 만민을 행복케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후천에서는 약한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꺾일지라」고 이르셨도다.⁴⁷⁾

후천의 사회는 천하가 화평한 사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한이 생길 수 있는 사회구조나 가치체계 또는 관념체계는 사라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현 사회제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⁴⁸⁾, 더 심화되는 현상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는 곧 후천선경을 열으시기 위하여 상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은 사사로운 개인을 넘어서 민중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동사회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자가 생각한 이상사회로 소국과민(小國寡民) 사회가 있다. 이는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사는 조그마한 공동체를 말한다. 인위적인 것을 피하는 즉, 무위(無爲)의 상태를 이상으로 삼는 도교사상에 적합한 이상향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용화세계(龍華世界)로서 석가 입적 후 56만억 7천만년에 미륵불이 하강하여 이 지상에 용화세계라는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 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180 종류의 질병이 없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인심이 곧아서 다 한 뜻과 같으며 서로 보면 기분이 좋고 좋은 말을 주고 받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된다고 설하고 있다. 서양의 대표적인 이상사회로는 유토피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토마스 모어(1480-1535)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유래한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서양인들의 이상사회를 완성시켰으며, 이상사회의 대명사가 되었다. 현실적인 사회적 諸문제 사유재산폐지 인구과다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노동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똑같은 이상사회이지만 동양의 이상향의 경우는 자연예찬과 人性에 많은 비증을 두고 있음에 반해 서양의 이상향은 사회구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항녕, 도통진경 사상의 현대적 의의, 1998, pp.39-46.)

47) 典經, 教法2장11절

48)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사회참여 늘고 있으며, 힘없던 노조들의 위상강화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등을 통해서 추측컨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후천선경에는 실로 평등한 지상낙원이 이룩될 것이다. 「전경」 교법1장10절·교법1장68절 참조.

제계서 공사하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후천선경의 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서 반상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고, 남존 여비의 관습이 사라질 것이며, 후천에서는 정음정양의 도수가 완성되어 도덕의 추락이 없고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제자가 선생을 해(害)하는 등의 하극상(下剋上)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과부수절과 같은 그릇된 관념으로 인한 괴로움 즉 묵은 하늘이 끼치는 폐도 모두 사라지며, 이는 곧 부정적인 문화적 환경이 이상적인 상태로 전이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후천의 사회는 옳으로써 살고, 수화풍 삼재(水火風三災)가 없어지는 자연환경의 이상적 모습이 이루어지는 지상선경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VII. 結論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상호관계가 있다. 그것은 상극과 상생의 관계이다.

49)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를 신으리라.」 하셨도다. (공사1-31)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 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이것은 땅을 석자 세치를 태우는 까닭이니라.」 (공사3-41)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예시80)

cf) 그리고 후천에서의 법과 다스림은 일점의 私와 인위가 없고 모든 법이 통일된다고 하셨다.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 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 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 (교법3-26)

상극은 서로 대립하여 부딪히는 경우이고 상생은 상호 도와서 함께 잘 살아 나가는 것이다.

수도한다는 것은 상생을 배워 모두가 상극이 없이 잘 사는 길을 찾아 화평(和平)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남에게 척을 짓지 않고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실천하는 일이다. 상극의 원리하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에 대해 상제님께서서는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1-3)라 하셨다. 또 선천 상극도수를 고쳐야 후천선경이 이루어짐을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 권지1-21) (예시6)는 전경구절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선천시대에 상극은 원한을 야기시켜 인간과 신명을 겁액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상극적 삶을 타파하고 상생을 이루어 나가는 자세가 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神)의 위엄을 떨쳐 불의(不義)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仁愛)를 베풀어 외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30)

이제 개벽시대를 맞아 일심으로 참된 자가 되는 수도를 우리 모두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인들이 해원상생의 양대원리로써 실천수행을 행해나갈 때 현실의 어그러진 도수가 바로 잡혀질 것이며, 또한 원한의 그림자가 걷혀 밝고 영롱한 상생의 불빛이 세상에 비워짐으로써 국가, 사회, 가정 모두에 건전하고 건강한 충효열(忠孝烈)의 윤리도덕과 미풍양속이 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람기르기가 누이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는 나라(교법2-34)라는 말씀은 사람기르기가 정성어린 실천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에 의한 修心을 誠·敬·信으로 誠之又誠해 나간다면 수도인들의 수도의 목적은 이루어지리라.

이는 곧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50년 공부 종필로서 전하신 도주님의 법방을 따라 공부를 지성으로 행해나가는 수도생활 속에서 誠之又誠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써 만드신 후천선경에 갈 수 있는 성숙한 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大巡指針,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大巡眞理會 要覽, 1969.
- 대순진리회연구위원회, 대순논집,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대순사상학술원, 대순사상논총 제1집, 포천:대진대학교 출판부, 1997.
 -----, 대순사상논총 제5집, 포천: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대순종학 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포천:대진대학교 출판부, 1998.
- 金能根, 儒敎의 天思想, 서울:송실대학교 출판부, 1988.
 윤이흠, 한국종교연구(Ⅲ), 서울:집문당, 1991.
 풍우 저/김갑수 역, 천인관계론, 서울:신지서원, 1993.
 고회민 저/송실대동양철학연구실 역, 中國古代易學史, 서울:송실대학교 출판부, 1994
- 류명종, 중국철학사(Ⅰ), 서울:이문출판사, 1995.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경세원, 1996.
 勞思光 著/鄭仁在 譯, 中國哲學史, 서울:探求堂, 1997.
 한국종교연구회, 한국종교문화사 강의, 서울:청년사, 1998.
 황준연, 한국사상의 길라잡이, 서울:박영사, 1999.
 류승국, 東洋哲學論考,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동양철학연구실, 1974.
 이문주, 中國古代의 天觀에 대한 研究, 동양철학연구회 제10집, 1990.
 윤재근, 대순진리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 연구 제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 이은봉, 韓國 古代宗敎思想의 構造的 探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4.
 이경원, 韓國 近代 天思想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9.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 연구 제8권, 199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역사속의 유토피아사상, 1999.